

## 實在解釋과 哲學의 立場

「現代의 思惟와 人間理念」의 續稿(四)

金基錫

하나는 먼저 精神이 있고 이 精神이 自然을 通하여 다시 精神에 止揚된다  
고하고 하나는 먼저 物質이 있고 이 物質이 思惟를 通하여 다시 物質에 □□  
한다고 한다. 概念 辨證法은 말하자면 物質에 대한 精神의 單位를 高□하고  
唯物辨證法은

**精神** 에 대한 物質의 制約規定을 主張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하나의  
優越을 承認하는 한에서 그것은 眞實한 意味의 對立이 되지 못한다. 오늘 의  
觀念辨證法이나 唯物辨證法은 위선자들이 말하는 辨證法이 되기 위하여서  
조차라도 먼저 어떤 絶對者를 想定하는 迷妄에서 벗어나지 안혀서는 안된다.

辨證法은 實在의 運動을 實在의 發展으로 보이고 現實의 聯關을 現實의  
對立으로 생각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辨證法의 現實에 대한 誤差를 읽는  
다. 運動을 發展으로 固執하는것이 辨證法의 思辨性的의 하나. 聯關을 對立으  
로 主張하는것이 辨證法의 思辨性的의 또 하나. 根源的 實在라고하여 精神또는

**物質** 을 想定하는 것이 辨證法의 思辨性的의 또 하나. 辨證法은 이 翻譯된  
現實을 가르쳐 구체적 現實이라고 한다.

辨證法은 發展의 論理를 말하면서 맞춤형 目的 論을 가져오고 對立의 論  
理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사나운 殺伐에 내여 보낸다. 우리들은 前者를 辨  
證法의 神學性, 後者를 辨證法의 宗派性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辨證法이 실  
상 어떠한 神學에 얽매이고 어떠한 分裂主義, 侵略主義에 利用되  
는가를 보라. 우리들은 암만해도 오늘의 辨證法에게 實在 및 그 세계에 대한  
具體的 解明을 바랄 수는 없다. 辨證法이 그 論理적 構造에 있어서 實在의  
現實構造가 아니라

神의 世界計劃을 豫想하고 主張하고 또 團結하기 때문이다.

辨證法이 歷史的 社會的 存在란것을 생각하기는 한다. 그러나 辨證法은  
그 이른바 『對立의 統一』에 붙잡혀 歷史를 단순한 發展의 世界, 社會를 조

그만 對立의 聯關으로 說明한다. 眞實한 意味의 歷史, 또 眞實한 意味의 社會는 어디까지던지 發展을 넘어서는 現實적 運動對立을 그 속에 싸는 具體的 聯關같은 것이 된다.

이 한개 思辨的 構成에 떠러진 辨證法의 저편에 眞實한 意味의 生成의 論理란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存在의 論理와 마조선다고 보아 나아가 이두 論理를 에워싸는 한 개의 高次의 論理를 建設해야한다. 이 새로운 立場에 있어서 現實의 世界, 특히

人間의 實存에 대한 根源的 理解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빌고 기다린다.

現代는 『現實』의 世紀로서의 意味를 가진다. 現代哲學의 課題는 이 『現實』이란 것을 그 根源性에 있어서 解明하는데있다고 보여진다. 現代의 思惟의 온갖 領野에 빚쳐 어떠한이 이 『現實』이란 것이 主張되고 說明되는것을 보라. 存在의 論理로서 希臘哲學, 獨逸의 理性主義에 있어서 한개 雄渾한 體系를 보인 觀念論은 그것이 단순히 觀念論이었다는 理由아래서도라볼 나 위조차 없는 抽象的 思惟로 截斷된다.

도가질 길이 없게 된다. 人間의 理性이 對象을 認識하는것은 對象을 認識하는것이 아니고, 對象에 있어서의 自己를 認識하는것이 된다. 人間의 對象의 思惟의 成立根據가 진실로 여기에서 構成된다.

哲學은 現實을 思惟한다고 한다. 그런데 人間만이 이 이른바 現實을 思惟 省察 해 나아간다. 여기에서 哲學의 主體로서의 人間이 措定된다. 現實은 본대 그 속에 人間을 가지고 또 人間의 存在에 있어서 그 『근본얼굴』을 開展시켜 나아간다. 여기에서 哲學의 客體로서의 人間이 發見된다.

이러때로 人間은 哲學의 主體이면서 客體, 그 客體이면서 主體의 意味를 가진다. 哲學은 본대 人間이 가지는 人間의 學이되고 또 人間을 생각하는 人間에 대한 學이 되어야한다. 이 主體的 客體的, 客體的 主體的 世界로서의 人間이란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人間을 歷史的 社會的 存在라고한다. 이 歷史이니 社會이니는 그 勝義에 있어서 人間의 歷史, 人間의 社會의 意味를 가진다.

歷史 觀, 社會觀이 人間을 規定할것이 아니고 도로혀 人間學이 歷史와 社會를 說明하게된다.

人間은 理性을 가진다. 그러나 人間은 단순히 『생각하는 存在』는 아니다. 人間은 행동 또는 실천을 가진다. 그러나 人間은단순히 『음즉이는 存在』도 아니다. 人間은 理性的=行動的, 行動的=理性的 存在가 되어야한다. 人間은 그 자신 한개生物이 되기는 한다. 또 生物은 물러가 한개物質이 되기도 한다. 그러타고 하여 人間은 「生物的인것」, 「物質的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人間은 「歷史的인것」을 가진다. 人間에게 있어서 「物質的인것」은 「生物的인것」에로, 「生物的인것」은 「歷史的인것」에로

自己를 止揚시켜야 한다. 人間은 다시 나아가 「理念的인것」을 가진다. 「歷史的인것」은 「理念的인것」에로 자기를 거듭 止揚시켜야 한다.